

中 기업에 매각 안됐지만 홀로서기 난망

리뷰 2017

⑤금호타이어 금호그룹서 분리

2006년 대우건설 인수때 위기

채권단 실사결과 운명 결정

자구안 노조 반발 좌초 우려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될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후 금호그룹에서 분리돼 홀로서기에 나섰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9월 중국 더블스타로의 해외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채권은행공동관리절차(이하 자율협약)'를 신청했다. 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9월 29일부터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가 개시, 현재 자율협약에 대한 실사가 막바지로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가 금호그룹에서 분리된 것은 창업 40여년만에 일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금호타이어 재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확정됐다.

이날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는 2014년 경영이 정상화됐다"며 2015년부터 다시 악화하기 시작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금호타이어가 이른 시일 안에 정

상화돼 좋은 회사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의 위기는 지난 2006년 내부 유보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채까지 발행해 대우건설 지분을 인수하고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국제유가 인상, 세계 자동차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물량이 급감하며 회사가 기울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2009년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2010년 워크아웃을 개시했다. 2014년 구성원의 노고로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와 워크아웃 7년만인 지난 3월 매각이 추진됐다가 우여

곡절 끝에 중국업체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향후 운명을 결정할 기로에 서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를 결정짓게 된다.

하지만 운명의 날을 앞두고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경영진이 노조에 자구안 이행을 약속하는 노사 동의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노조가 계속 반발할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방식으로 정리 해고와 임금삭감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전남도-일자리위원회, 한전서 일자리 해법 모색

전남도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1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비전홀에서 '정부 일자리 대토론회' 및 전남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일자리 해법, 전남도에서 길을 찾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시호 한전 부사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일자리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회에 이어 정부의 일자리정책 5

년 로드맵과 전남도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소개됐다. 또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있었다. 특히 정부와 전남도가 일자리 전반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전남도가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민간 부문·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주력 공공기관 2022년 지역인재 30% 의무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나주에서 열린 '정부 일자리 대토론회'에 참석해 "올해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했고,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7년을 끝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사전에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출범 초가라서 1단계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앞으로는 2단계로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과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자리 인프라는 일정 정도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가 만든 정책들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과 법률들이 통과되어야 시행되고 그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남에서 길을 묻다!'는 주제로 지역 대토론회를 가졌다.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결집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전남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위해 구상중인 지원책은.

▲한전 등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게 내년까지 지역인재를 18%채용토록하고 이후에는 매년 3%

씩 기준을 높여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해 지역 청년인재를 적극 육성할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남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

-광주·전남 간에 현안을 두고 이견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내년 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청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전라도의 새로운 청년을 희망과 번영의 땅으로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전남과 광주가 한 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단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시와 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양 시도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19조 2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사용되어야 할 텐데, 내년도 일자리 사업 운영방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일자리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9751억원이다. 올해 대비 14.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 청년 실업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높은 성과 중심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창올림픽 D-50 블랙이글스 곡예비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50일 앞둔 21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경기장 하늘 위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곡예비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남도음식평가 116곳 지정 ... 전통음식 보존·계승

전남도는 21일 도청 왕인실에서 남도음식평가 대표 116명을 초청해 남도음식평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음식문화실천·진절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남도음식평가는 전남지역 모범음식점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했고, 지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2년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남도음식단 실천업소, 전통이 살아 있는 고유의 맛을 간직한 업소 위주로 엄

선택했다"면서 "이미 지정된 업소라도 음식문화개선 실천 의지가 부족하거나 점적서비스 및 시설 환경이 미흡한 업소는 과감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남도음식평가는 입구에 표지판이 부착되고,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또한, 전국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남도 맛 지도와 전남도 누리집, 관광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한편, 남도음식 평가는 남도의 전통음식을 보존·계승·발전시키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선정해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열병합발전소, 광주 생활폐기물 반입 안돼”

조재운 나주시 부시장 기자간담회

나주시는 21일 광주지역 생활폐기물의 열병합발전소 연료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재운 나주시 부시장은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9년 3월 열병합발전소 설립 추진 당시 환경부·전남도·한국난방공사 등 9개 기관은 발전소 연료로 나주·회산·목포·순천 등 전남 6개 시군에서 나오는 1차 가공처리한 폐기물(성형)만 반기로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난방공사가 합의 당사자인 나주

시·전남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비성형)을 반입하기로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조 부시장은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신의성실을 팽개친 행위"라며 "당초 합의대로 광주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에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나흘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량 기준 보증금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량 기준 보증금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회수)에 따른 재용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스텐),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알루미늄)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 [인상 후]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